

방글라데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8.

I. 일반개황	2
II. 경제동향	3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148천 Km ²	GDP	891억 달러 (2009년)
인구	162백만 명 (2009년)	1인당 GDP	549달러 (2009년)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Taka (Tk)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달러당)	69.04 (2009)

-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동쪽으로는 인도와 미얀마, 북쪽과 서쪽으로는 인도, 그리고 남쪽으로는 벵갈만과 접하고 있음.
- 1947년 인도(주로 힌두교)에서 분리 독립한 서 파키스탄과 동 벵갈(양 지역 모두 주로 이슬람교)이 함께 파키스탄을 건립한 후, 1955년 동 벵갈이 동 파키스탄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나, 지리적으로 소외와 불만을 느꼈던 동 파키스탄이 1971년 파키스탄에서 탈퇴하여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바꾸었음.
- 2009년 기준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이고, 전체 노동인구의 약 5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후진국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세계 제1위의 인구밀도(2010년 약 1,096명/km²)를 기록하고 있으며, 몬순기후에 속해 매년 홍수와 사이클론으로 전 국토의 1/3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인프라가 열악해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여야간 정쟁 격화로 군부가 2007년 1월 무혈쿠데타로 과도정부를 수립하여 2년간 통치하였으나, 총선의 무기한 연기와 이로 인한 정국 불안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결국 2008년 12월 총선 실시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연맹(AL)이 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하시나 총리가 1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제성장률	6.6	6.4	6.2	5.9	6.0
재정수지 / GDP	-3.4	-3.7	-6.2	-4.1	-5.0
소비자물가상승률	6.8	9.1	8.9	5.4	7.4

자료: IMF, EIU

□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제 성장률 기록

- 방글라데시 경제는 의류부문의 수출 호조,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대외 원조자금에 의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6%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음.
- 2009년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주요 수출국인 미국, 유럽국 등의 중저가 의류 수요 증가로 (의류부문 수출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출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음.
- 또한 해외근로자 송금이 100억 달러에 달하고 GDP의 20%를 차지하는 농업부문 생산이 2007년 사이클론으로 인한 피해에서 평년 수준으로 회복함에 따라 국내 소비가 증가하여 2009년 경제성장률이 5.9%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
- 2010년에도 농업부문의 안정적인 생산 및 해외근로자 송금을 기반으로 한 국내소비로 전년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감소

- 2007년에는 고유가 및 주요 식료품 가격의 상승의 영향과 함께 자연 재해로 인한 국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주요 쌀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1%로 상승하였으며, 2008년에도 정부의 유가 보조금 삭감 결정 등으로 8.9%를 기록하였음.
- 2009년 중에는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4%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 중에는 국제유가 및 국제 상품가격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물가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 방글라데시는 낮은 세금 징수율(2008/09년 기준 GDP의 12%), 취약한 세수기반, 복잡한 세제 등으로 인하여 세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열악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정부지출은 증가함에 따라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 2008년에는 빈곤층 지원 복지예산 및 식료품 보조금 지급 증대, 자연 재해 피해 복구 지원 등 정부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6.2%로 확대되었으나, 2009년 중에는 재정지출 규모를 축소시켜 재정적자가 GDP의 4.1%로 감소하였음.
 - 2010년에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전력, 상수도 등 인프라구축 사업 등을 위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1조 3,000억 다카(약 191억 달러)의 재정을 지출할 것으로 발표하는 등 재정수지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방글라데시는 각국 정부 및 대외원조기관으로부터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을 지원받고 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세수 부족으로 인프라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움

- 1인당 GDP가 600 달러 이하인 낮은 국민소득과 취약한 행정능력에 따른 낮은 세금징수율 등으로 세수가 부족하여 전력, 식수 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에 큰 제약을 받음.

□ 높은 수입의존도

- 방글라데시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의 자본재와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주요 산업이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하고,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농업부문 및 의류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 GDP의 20%를 차지하는 농업부문에 전체 노동력의 50%가 종사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가 전체의 80%에 달해 정부는 농업분야 개발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 중 의류산업이 대부분을 차지 (GDP의 17%, 총수출의 80%)하는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보이며, 총수출의 60% 이상이 미국과 유럽지역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

- 방글라데시는 몬순기후에 속해 7월과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사이클론이 자주 상륙하는데, 이에 대비한 인프라가 열악해 잦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등 농업 분야에 큰 타격을 받음.
- 식료품 가격이 전체 소비자물가의 60%를 차지하는 등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방글라데시 경제 구조상 빈번한 자연재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줌.

나. 성장 잠재력

□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 1억 5,8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중 96%가 만 65세 이하(15~65세는 62%)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 수준이 낮아 의류 및 신발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유리함. 이에 따라 최근 중국에서 생산하던 노동집약적 기업들이 중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시설을 방글라데시로 이전하고 있음.

□ 풍부한 천연가스 및 석탄

-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이 2009년말 기준 3,600억³m에 달하고 석탄 매장량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짐.
- 방글라데시 정부는 가스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 가스 산업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고, 이후 미국, 영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 현재 압축천연가스(CNG)가 차량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900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등 양호한 가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음.
- 우리나라 GS칼텍스도 2010년 2월 미국 정유사인 쉘브론으로부터 방글라데시 블록 7광구* 탐사전의 지분 45%를 매입하여 처음으로 방글라데시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블록7 광구는 면적이 7천500km²에 이르며 이미 다수의 가스전이 발견된 지역에 인접해 가스자원이 부존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입

-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경제구조 개혁과 민간투자 장려,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해왔음.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부과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수출가공공단을 설치하고 10년 동안 수출기업에 면세를 적용하는 Tax holidays 제도 등 세제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또한 방글라데시는 군수산업 및 원자력 발전소, 주화 및 화폐 인쇄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외국에 개방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 미국 및 유럽국들로부터 가스, 석탄 등의 자원개발과 금융, 병원, 이동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07년) 6억 5,280만 달러 → ('08년) 10억 960만 달러 → ('09년) 6억 7,420만 달러

□ 식료품 가격 규제 및 신용대출 증가 억제로 안정된 물가 수준 유지

-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리변동환율제 시행으로 최근 해외 근로자 송금 증가 및 의류산업 수출 증가에 따른 외화 유입 증가로 물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으나 정부의 식료품 가격 규제 및 완만한 신용대출 증가세로 안정된 물가 수준을 유지해옴.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 상 수 지	1,196	857	926	3,345	2,103
경상수지 / GDP	2.0	1.3	1.2	3.8	2.1
상 품 수 지	-2,890	-4,195	-6,004	-4,693	-5,671
수 출	11,554	12,474	15,502	15,067	15,670
수 입	14,443	16,669	21,506	19,760	21,341
외 환 보 유 액	3,804	5,182	5,687	9,500	9,349
총 외 채 잔 액	20,535	21,859	23,644	24,224	23,921
총외채잔액 / GDP	34.1	31.9	29.7	26.1	24.9
D. S. R.	3.7	3.7	3.6	3.4	3.8

자료: IFS, EIU, GDF

□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시현

- 2009년에는 전체 상품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의류수출이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주요 수출국 내 중저가 의류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여 상품수출이 전년수준을 유지하였음. 반면 세계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수입액 감소 및 쌀 풍작에 따른 식료품 수입액 감소 등으로 상품수입이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2008년 60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축소됨.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등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따른 경상이전 수지 흑자로 2006년 이후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 중에도 상품수지 적자 규모 축소 및 10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근로자 송금액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33억 달러를 기록함.
- 2010년에는 국제 유가 및 상품가격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상품수입액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규모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아와미연맹이 압도적 총선 승리로 집권 후 정국 안정

- 2006년 10월 지아(Khaleda Zia) 총리의 임기 종료후 총선의 공정성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정쟁이 격화되자, 2007년 1월 군부가 무혈 쿠데타로 과도정부를 수립하였음. 이후 총선의 무기한 연기와 이로 인한 정국 불안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과도정부는 2008년 12월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총선을 실시하였음.
-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Wajed) 총수가 이끄는 아와미연맹(Awami League: AL)이 총선에서 총 300석 중 230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14개 정당으로 구성된 대동맹(Grand Alliance)의 다른 정당의 지지 없이도 집권이 가능하게 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중임.

□ **군부의 정치 개입 가능성은 낮음**

- 하시나 현 총리를 지지하는 무하마드 압둘 무빈 장군이 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였으며, 2009년 2월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에 의해 발생한 폭동을 정부의 요청대로 군사재판이 아닌 민간법정에서 재판하기로 합의하는 등 군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군부의 정치 개입 가능성이 낮아짐.

2. 사회동향

□ **총파업(hartal)이 큰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음**

- 2010년 6월 중 칼레다 지아 전 총리가 이끄는 방글라데시 국민당(BNP)이 야당탄압, 물가인상, 빈번한 단전, 단수 등을 비판하며 총파업(hartal)을 주도하여 야당지지자들과 여당 소속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야당 인사 300명 이상 체포되는 등 불안 사태가 발생하였음.
- 향후 금번 총파업과 같은 국민당 주도의 반정부 시위는 소규모로 종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국민당이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면서 2007년 과도정부 수립 전까지 지속되던 정당간 극한 대립은 재현 가능성이 낮아 사회 안정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3. 국제관계

□ **미얀마와 영해 문제로 불편한 관계 지속**

- 방글라데시는 미얀마와 불법 국경 무역, 국경 분쟁지역인 벵갈만에서의 가스 탐사,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Rohingya) 난민의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로의 송환 등의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2009년 10월초 미얀마 정부가 난민 탈출 방지 등의 이유로 방글라데시와의 국경지역인 나이캉차리 지역에 철조망을 세우고 병력을 증강하면서 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음.
 - 19세기 영국인들이 인도에서 데려온 후손으로 알려진 로힝야족은 종교가 무슬림으로 미얀마 정부가 국적도 부여하지 않고 토지 소유,

이동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얀마 군정을 피해 1978년 및 1991년 수만명이 방글라데시로 이주하여 난민으로 생활하고 있음.

□ 인도와의 관계 개선

- 2010년 1월 중 양국간 국경범죄 척결, 경제협력 등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민당 집권시절 소원하던 인도와의 관계가 현 정부 출범 후 개선되고 있음.

□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 강화 노력

- 대인도 견제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해 오던 중국과의 관계가 최근 방글라데시의 인도와의 관계 개선으로 소원해 질 조짐을 보이자, 2010년 3월 하시나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등 방글라데시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금번 방문을 통해 양국을 잇는 도로를 건설하고, 중국의 지원으로 방글라데시의 토지 이용실태 및 자연재해 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내에 위성국을 건립하는 계획 등을 발표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 태도

□ 안정적인 외채 구조

- 방글라데시의 총외채 규모는 2009년 말 24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외채의 70%가 30년 이상의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이며, 나머지 30%의 경우도 평균 대출기간이 20년 이상임.
- 방글라데시의 2009년 중 D.S.R은 3.4%,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6.07%를 기록하였으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도 22.3%로 안정적인 외채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방글라데시는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국내 채권 발행을 통한 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외국인 증권투자 및 민간 부분 해외차입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정부의 외화유동성 관리에 따라 갑작스런 외부 요소에 의한 외화유출급증으로 외채상환 불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10.8)	D1 (2009.12)
OECD	6등급 (2010. 4)	6등급 (2009. 4)
S&P	BB- (2010. 4)	- -
Moody's	Ba3 (2010. 4)	- -

- S&P와 Moody's는 2010년 4월 처음으로 방글라데시 외화장기채권에 대해 각각 BB-(Stable)과 Ba3(Stable) 등급을 부여하였음.
- Euromoney : 121/186 (2008. 9) → 119/186 (2009. 3) → 116/186 (2009. 9) → 113/186 (2010. 3)
- I.I. : 129/177 (2008. 9) → 134/177 (2009. 3) → 137/178 (2009. 9)
- I.C.R.G. : 118/140 (2008. 8) → 92/140 (2009. 9) → 90/140 (2010. 5)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 영국 ECGD: 민간부문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네덜란드 Atradius: 승인 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 가능, 재량한도 없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3년 12월 18일(북한과는 1973년 12월 16일)
- 주요협정:** 항공협정(1979), 문화협정(1979), 이중과세방지협정(1984), 투자보장협정(1988), 경제기술협력협정(1995)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방글라데시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방글라데시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612	1,095	1,064	철강판, 석유제품, 종이제품
수 입	142	169	122	석유제품, 가죽, 의류
합 계	754	1,264	1,186	

자료: 한국무역협회

- 방글라데시와의 교역 규모는 2007년 7억 5,335만 달러에서 2008년 12억 6,405만 달러로 2008년 최초로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년대비 수출입 규모가 다소 감소하여 11억 8,579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3월 말 현재 189건, 2억 2,251만 달러를 기록(투자누계 기준)하고 있음.

집행 기준 제5위의 경협지원 대상국

- 대 방글라데시 EDCF 지원금액은 2010년 7월말 기준으로 총 7건, 1,564억원을 기록, 제5위의 경협 지원 대상국임. (승인기준 총 13건, 4,757억원)

VI. 종합 의견

- 방글라데시는 의류산업의 수출 호조,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 대외 원조자금에 의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부터 6%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도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의류수출과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로 5.9%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 전년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낮은 세금 징수율, 취약한 세수기반 등으로 세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의류수출 증가 및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08년 12월 총선에서 셰이크 하시나 총수가 이끄는 아와미연맹(AL)이 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쟁으로 인한 국정 불안 요소가 해소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취약한 재정수입에 따른 제한적인 정부 투자에도 불구하고 양허성 차관 위주로 대외채무 관리하고 재정적자 규모 및 물가 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조사역 이진경 (☎02-3779-6686)
 E-mail: jinkyung22@koreaexim.go.kr